

曲江(곡강)02.1 - 두보

朝回日日典春衣
每日江頭盡醉歸
酒債尋常行處有
人生七十古來稀

조정에서 나오면 봄옷을 잡혀놓고,
날마다 강가에서 취하여 돌아오네.
술빚이야 가는 곳마다 늘 있지만,
인생 칠십년은 예부터 드문 일이라네.

메모

